

나주시 수년간 예산 멋대로 변경

나주시가 수년전부터 의회 동의없이 예산을 임의 변경해온 것으로 나주시의회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임의 예산 변경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나주시의회 특위가 지난 2003년 예산서는 조사하지 않는 등 특위 조사활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시의회 특위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심의, 의결된 예산 가운데 임의증액과 추가, 삭제, 부기(簿記) 및 과목(科目) 변경 등 모두 94건의

3년간 임의 증액·과목 변경 등 94건 시의회 특위 조사내용 축소 논란도

임의변경 사례를 적발했다. 특위는 지난 2004년 67건을 비롯해 2005년 18건, 지난해 6건 등 94건의 임의변경 사례를 적발했으며 총 예산에서 9천만 원이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그러나 나주시 특위는 2003년 예산

서 역시 조작된 것을 확인하고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임의 변경된 예산 규모가 40억원을 넘는데도 부풀린 예산과 삭감된 예산을 합산해 당초 예산보다 9천만 원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나주시 특위

는 의회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시정요구'가 아닌 '조치요구'로 단계를 낮춰 집행부에 이송했다.

시의회가 '시정요구'를 할 경우 나주시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나 조치요구는 이같은 의무 규정이 없다.

한편 나주시의회 특위 내부에서도 9천만 원만 임의 증액했다는 조사 결과는 지나치게 역수를 줄인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함평 하수관거공사 하도급 건설사 자재대금 등 미지불 지역업체 고통

함평 하수관거공사 하도급 업체인 A 건설이 각종 장비 임대료와 자재대 등 6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아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B 건설 시공으로 지난 2005년 10월 착공된 1단계 함평군 하수관거정비공사(토목·철근 콘크리트)는 지난 1월 준공됐다.

그러나 A 건설은 원청업체로 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았고 외상 거래했던 유류대와 장비 임대료 등을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A 건설과 거래했던 함평 지역 소상공인 100여명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이종고를 겪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원청 업체 및 A 건설측에 말린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A 건설을 관할하는 광주

지검 순천지청에 진정을 접수,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피해자 K모(49·학교면)씨는 "다시는 이같은 회사가 하도급 공사를 맡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함평 하수관거공사는 현재 합평읍에서 2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잦은 교통통제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 두차례에 걸쳐 하도급업체가 교체되면서 공정이 늦어져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총 공사비 208억원이 투입되는 함평군 하수관거 공사는 오는 2008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함평=박정욱기자 pyj4079@

9~11일 여수국제청소년축제

BIE회원국 청소년 포함 38개국서 참가

6만여명 화합 한마당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 8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에 외국 청소년들이 대거 참가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국제청소년축제에 참가를 신청한 외국 청소년들은 BIE(세계박람회기구)회원국을 포함해 38개국, 263명에 달한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춤과 노래, 악기 연주 등 재능있는 청소년들이 많아 어느 해보다 풍성한 잔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외국 청소년들은 오는 9일 여수 문수동 파티랜드에서 환영오찬을 마친뒤 문예회관에서 장기자랑 시간을 갖는다.

또 국제청소년연합과 외국 청소년공연단이 함께 하는 세계민속공연과 세계 청소년어울마당, 각국의 민속자랑 및 해외의상을 체험한다.

이밖에 태권도와 사물놀이도 배우게 되며 시티투어 등 각종 부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번 축제는 '함께가자, 우리의 꿈을 찾자'라는 주제로 국내외의 청소년 6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목포 삼향천 악취 없앤다

내년까지 오염 물질·생활하수 유입 차단

강바닥에 모래·자갈 깔고 생태하천 회복

목포시가 삼향천 악취 제거에 나섰다.

시는 오수와 상류부 오염물질이 삼향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천변 우수 박스내 생활 하수 유입 방지를 위한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수질 개선제를 살포하고 하상을 준설한 뒤 모래와 자갈을 깔아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며 1일 1만 이상의 용수를 확보해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다. 목포시는 지난 5월 삼향천에 이어 1천여 마리를 방류하고 수질정화기능이 뛰어난 수생식물을 심는 등 생태하천으로의 기능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100억 원이 투입된 삼향천정화사업은 지난 6월 완공됐으나 악취가 발생해 졸속 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이성진기자 sslee@



해남 우항리 공룡박물관 개관 100일 50만명 관람 새 관광명소 자리매김

지난 3일로 개관 100일을 맞은 해남 우항리 공룡박물관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 지난 4월 27일 문을 연 공룡박물관은 현재까지 50여 만명의 관람객이

찾아 입장수입만도 1억6천여 만원에 이른다. 우항리 공룡박물관은 국내 최대 규모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국내 유일의 알로사우루스 진품화석 등 다양한 볼

거리로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해남군은 공룡박물관과 인근 지역 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오는 2009년이면 현재 공룡 화석지 부지내에 화석박물관 체험장과 지질체험장, 다이노사이언스 파크 등을 갖춘 생태체험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선생님들 "국악 배우니 신나요" 나주교육청(교육장 임을빈)이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초등교사 22명을 대상으로 국악실기 연수를 실시했다. 교사들은 이번 연수에서 국악 학습방법은 물론 사물놀이, 민요, 판소리 등을 익혔다. 나주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7년째 여름방학기간을 이용, 국악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나주교육청(교육장 임을빈)이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초등교사 22명을 대상으로 국악실기 연수를 실시했다. 교사들은 이번 연수에서 국악 학습방법은 물론 사물놀이, 민요, 판소리 등을 익혔다. 나주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7년째 여름방학기간을 이용, 국악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재외동포 2세 특별 국악연수

국립남도국악원 6~17일

진도군 여귀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은 재외동포 2세와 미국에 입양된 교포를 위한 특별 국악연수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교포 2세와 입양 양부모 등 18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남도국악원에서 숙식을 하며 국악기, 무용, 민요를 비롯해 진도북춤, 강강술래 등 전통민속과 음악을 체험하며 운림산방, 신비의 바닷길, 해양생태 체험관 등도 둘러본다.

연수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재미동포와 함께하는 특별공연' 무대를 마련, 고국에서의 특별한 추억도 쌓게 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보성에 10MW급 태양광 발전소 들어선다

내년 12월까지

보성에 10MW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보성군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설비회사인 YPP에너지(주)와 760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YPP에너지는 보성군 겸백면 도하리 일대 36만㎡ 부지에 1차로 내년 9월까지 5MW급 시설을 준공하고 2차분 5MW급 시설도 내년 12월 말까지는 설치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이를 위해 총괄지원팀과 인허가 지원팀 등 2개 팀 8명의 지원인력을 별도로 구성해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YPP에너지 외에도 태양광발전소 추가 건설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의 견학장소 등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장흥 상반기 교통사고 2.8배 늘어

열악한 교통안전시설과 음주, 무면허로 올 상반기 장흥지역의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했다.

장흥군의 올 상반기 교통사망사고 건수는 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건에 비해 2.8배가 늘어 전남도내 21개 경찰서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장흥지역 교통사망사고가

크게 늘어난데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의 교통 안전시설이 열악한데다 음주, 무면허 운전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1·2월에 대역을 연정리와 부산면, 장평면에서 발생했던 3건의 사망사고 모두 무면허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7에서 0.23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발생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올들어 7월말 현재 장흥경찰에 단속된 음주운전은 160건으로 지난 한해 단속건수인 170건에 육박하고 있다.

서상록 장흥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도시권 주민들에 비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음주와 무면허운전비율이 높다"며 "그동안 군 소재지 위주의 지도·단속체제에서 앞으로 면 단위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서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강진 향토음식 발굴 음식 경진대회 연다 10일까지 신청 접수

강진군이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음식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음식경진대회는 제 12회 강진청자문화제 기간(9월 8일~16일)인 오는 9월 10일 대구면 청자촌에서 개최된다.

일반 음식점인 경우 강진군 음식점업지부(061-434-3573)로, 단체 및 군민, 대학생 등은 강진군 유통팀(061-430-3101)으로 오는 10일까지 신청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강진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등을 활용해 만든 음식을 출품해야 한다.

이번 대회의 1등(농림부장관상)부터 5등까지 입상자는 육성지원금과 함께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음식경진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의료봉사 대학생 격려 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



고흥경찰서 동강파출소(소장 윤영근)는 최근 동강초등학교에서 농촌한방 의료봉사 활동 중인 경희의료원생을 격려하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상담 및 교통질서지킴이, 전화급응사기 예방 등 홍보활동을 벌였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순천 신도심~동천~순천만

친환경 웰빙도로 11월 개설

순천시 신도심과 동천, 순천만을 잇는 친환경적인 웰빙도로가 개설된다.

순천시는 신도심에서 동천과 순천만을 잇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향동 강남중앙교회~동천간 웰빙도로 3.3km를 개설키로 했다.

5억원의 예산으로 이달 중 착공, 오는 11월 말 준공 예정인 순천만 웰빙도로는 탄성포장 등 친환경 공법으로 건설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이 도로가 개설되면 신도심에서 동천과 순천만을 잇는 친환경 동선 확보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현재 시공중인 도사동 이사천(하수종말처리장) 보행자전용 교량과 동천교~순천만 대대포구까지 4.3km의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시내 전지역에서 순천만까지 친환경 하이킹 루트를 연결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장흥 회진면 삭금보전소 개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장흥군 회진면 삭금 보전진료소가 지난달 31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삭금 보전진료소는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라 총사업비 1억6천만원을 들여 3월 착공, 연건평 40평 규모로 지어

졌다. 보건진료소 준공으로 회진면민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농어촌 벽지에 보건진료소를 신축,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계획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영산강 살리기 환경정화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점 사회봉사단(단장 조태웅)은 최근 영산포 영산강변 및 체육공원 일대에서 '영산강 살리기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이날 30명의 봉사단원들은 폐비닐과 빈병 등 쓰레기를 줍고 환경보호 캠페인도 벌였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